



나의 일 나의 행복

이성희/송파노인종합복지관 관장

지 도에도 찾아볼 수 없는 나만의 길을 걸으며
 지나온 세월들을 주마등 같이 떠올리게 되
 —는 것이 50대인 것 같다.

노년학에서 노화를 느끼는 시기가 나이 50과 70
 이라고 얘기한다. 50대에는 가정을 이룩해서 자
 녀를 양육하는데 온갖 정성을 쏟아 성인이 된 자
 녀들을 출가시키면서 불현 듯 자신의 노후가 닥쳐
 오는 것을 느끼는 시기이고, 70은 이제 얼마 남지
 않은 세월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
 시기라고 한다.

나 역시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이화여자대학
 교 미술학과를 다니며 서울역 앞에 구두닦이 소년
 들을 밤에 교회에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자원봉사
 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이 지금의 나를 만
 드는 씨앗이었던 것 같다.

그 후 가정을 가지고 자녀와 단란한 생활을 일
 본에서 하고 있을 때에는 거의 복지에 대한 개념
 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.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
 고 있었으므로 단지 어르신을 모시는 것이 당연하
 였고 재일 교포 1세 할머니들을 위한 양로원이 없
 어 일본 양로원에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
 때문에 자원봉사나 해 볼 생각으로 사회복지 공부
 를 하게 되었다.

그런데 자신이 배웠던 미술은 하얀 백지 위에
 구도를 그리고 색을 칠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보람
 을 느꼈었는데 복지는 아무 것도 없는데 노인에게
 여러 가지 물질적·정신적·심리적 도움과 드림
 으으로써 환한 웃음 짓는 얼굴을 만들어 드릴 수 있
 다는데, 또 다른 창조적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었
 다.

아마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 이 일을 쉬지 않고

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.

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면 직업의 귀천
 을 막론하고 인간성을 존중하며 복지를 문화로써
 승화시켜 보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숨길
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

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분으로는 돌아가신
 동경교회 목사님이신 오윤태 목사님과 한국에서
 뇌성마비복지회 회장님 이셨던 김학묵 박사님이
 다.

오목사님은 내 손을 붙잡고 명치학원대학원에
 입학시키며 복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해 주셨
 고 그분과 친분이 계신 성례복지재단 이사장이셨
 던 하세가와 다모쯔 선생님의 시설을 보여 주시며
 땅에 떨어져 한 알의 씨앗의 역할을 하신 역사에
 대해 알려 주셨던 분이시다.

그분의 이야기 중 “Client(노인, 장애인, 아동
 등)의 복지가 향상되지 않는 한 자신의 복지를 우
 선으로 할 수 없다”는 말씀과 김학묵 박사님의
 “우리들의 인생은 문제해결 과정이다”라는 말씀
 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.

또한 나는 현재 청암노인요양원과 한국치매가
 족회 대표를 맡고 있으며 자신이 걸리고 싶어 걸
 린 병이 아닌 “치매”환자와 같이 하고 있다. 노년
 기는 어느 누구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의
 과제이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해결해 나아가
 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.

이렇게 여성의 작은 힘으로 할 수 있는 진실이
 모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.
 또한 그것이 나의 소중한 행복이자 개인의 작은
 소망이 우리사회를 복지사회로 일구어 나아가갈 수
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. 